

## 일본어 차용접미사 ‘的(teki)’의 한일번역의 제문제

손재현  
(동경대)

### 1. 들어가기

여러 가지 한일 양언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한자숙어는 한자숙어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자어 아래에 붙어서 그의 성질이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접미사 ‘的’이 접미되는 한국어의 한자숙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접미사 ‘的’은 원어(原語)인 일본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어에서 차용되어 한국어에서도 매우 사용빈도가 높게 쓰여 지고 있는 접미사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에 있어서의 ‘的’의 용법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반면에 상이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的’가 쓰인 단어의 예를 상세히 검토하고 한일번역에 있어서 ‘的’ 표현의 직역이 어려운 경우를 제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양국 모두 주로 형태론적인 연구가 활발하다. 우선, 일본에서는 藤居信雄(1961)를 비롯하여, 山田巖(1961), 遠藤織枝(1984), 王淑琴(2000)에 의해서 지

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가 나왔다. 이는 주로 ‘的’이 접미 되는 여기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原由起子(1986)의 ‘的’에 관한 중국어와의 비교연구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的’의 선행어기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선행어기가 한자어이면서 비구체성을 띤 명사라는 견해(김재운 1976)와 다른 하나는 선행어기가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的’의 선행어기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견해(김용석, 1986)도 나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모두 형태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이다. 이 외에 천수성(2000)에 의해서 접미사 ‘的’에 있어서의 언어감각에 관한 연구가 있다.

손재현(2001, 2002)는 일본어 차용접미사 ‘적’이 쓰인 표현이 한일대조연구로써, ‘적’이 쓰인 표현에 대한 계량적 고찰과 양국의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접미사 ‘的’의 표현에 대한 사용빈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사용빈도수는 일본어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의 경우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한 페이지에 3번 이상 접미사 ‘적’의 표현이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접미사 ‘적’의 사용빈도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접미사 ‘的’가 쓰인 표현은 일본에서는 메이지 초기의 번역문에서 중국어의 조사의 용법을 따서 영어 -tic 등의 형용사적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어로의 유입<sup>1)</sup>은 1896년 재일본 유학생들에 의해 창간된 『친목회회보』에서 첫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송민(1985)은 접미사 ‘的’의 시원(始原)에 대하여 국어에 ‘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개화기의 국한문혼용체문장부터이며, 초기의 ‘的’은 오늘날과 비교하여 몇 가지의 차이점대하여 기술하였다. ① ‘的’에 병렬접미사 ‘~과’가 연결된다 ② 수식어자리에 놓이는 ‘的’에 또다시 소유접미사 ‘~의’가 연결된다 ③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형용사가 삽입된다 ④ 오늘날의 ‘的’의 의미와 다른 용법으로 쓰인다 ⑤ 자유스러운 어기(語基)의 배분이다. 그러나 1908년에 나타나는 용례는 이미 오늘날과 큰 차이 없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한자어의 대부분은 일본어에서 만들어진 번역어로서, 개화기이후의 국어에 서둘러 차용된 서양적 개념어들이다. 한자어

1) 鄭英淑(1994)를 참조.

가 이처럼 급격히 개신(改新)되어 가는 여파를 타고 ‘的’ 또한 그 기반이 쉽사리 확장될 수 있었고 또한 개화기의 교과서에는 일본어에서 엿볼 수 있는 번역용한자조어(翻譯用漢字造語)<sup>2)</sup>가 허다하게 수용되었는데, 이 때에 ‘的’도 함께 수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초기의 ‘的’은 ‘~과, ~의’와 같은 곡용접미사를 동반하고 나타나는 경우처럼, 이 역시 일본어의 “~的, ~的”와 흡사하고 국어의 ‘的’이 일본어의 ‘的’을 번역차용하였다.

## 2. 양 언어에 있어서의 접미사 ‘的’

조사항목의 수집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양국사전에서의 접미사 ‘的’의 출현 어례였다. 사전의 선정은 양쪽 모두 최신판이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택하였다.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한국어)을, 일본어의 경우는 『逆引き廣辭苑』(이하, 일본어)을 택하였다. 일본어는 어말(語末)에서 어두(語頭)로 거꾸로 철자를 50음(音) 순으로 배열한 사전이어서 간단히 총어례를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사전이 없어서 7,308페이지분량의 사전에서 접미사 ‘적’의 표제어를 일일이 찾아나가면서, 전문어, 북한어로 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것, 어기(語基)와 함께 사전에 나타나 있는 것, 다의적(多義的)으로 쓰이는 것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2) 우리가 흔히 중국어 권의 한자어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는 “電信, 銀行, 會社, 科學, 藝術, 哲學, 社會, 個人”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야나부(柳父章), 『翻譯語を讀む』 p.112) 한자를 사용한 조어에 관련하여 야나부는 한자 한 자(字)로 표현하면 표의문자인 탓에 새로운 의미의 표현을 할 수 없고 세 자나 네 자는 너무 길다. 필연적으로 한 단어를 두 자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지명(地名)과 일본인의 성(姓)이 그 대표적인 조어례라 할 수 있고, 이후 구미(歐美)에서의 새로운 문물을 일본인은 이미 수천년이상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문명을 한자로 받아들여온 전통으로 새로운 외래문명을 하나한 번역해나갔다. 이때에 만들어진 한자가 바로 위의 “電信, 銀行, 會社…”이고 이 또한 일본의 한자조어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 두 자이다. 참고로 이러한 조어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야나부는 「カセット効果(카세트효과)」로 이론화하고 있다.

조사결과 한국어의 총출현어수는 어휘수는 1,225語이며, 이 가운데 전문용어와 북한어 각각 148, 47개를 제외하면 1,030어이다. 여기서 전문용어란, 예를 들어, 가톨릭의 전문용어로 분류한 “태만적불신(怠慢的不信)”의 경우 “태만적(怠慢的)”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경기적실업(景氣的失業)· 금융적유통(金融的流通)· 누적적우선주(累積的優先株)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내벌적(內罰的)· 무벌적(無罰的)과 같은 경우는 주로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나 특정한 단어와 연결되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전문용어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표준국어에서 표시된 북한어의 경우 전문용어로 분류한 것이 33개였으며, 나머지 14개중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4개를 빼면 9개이다. 또한 접미사 ‘的’이 어기(語基)에 따른 추가적인 의미로 기술되지 않고 수록되어 있는 것이 34語이다. 즉, ‘的’이 접미되지 않은 어기(語基)만으로 쓸 수 없는 경우이다.<sup>3)</sup>

## 2.1 조사결과 및 고찰

### 2.1.1 음절과 어종으로 본 ‘的’의 선행어기

음절수는 선행어기의 음절수이다. 예를 들어, 극적, 단적 등은 1음절에 속하며, 개성적, 경제적 등은 2음절, 근시안적, 무의식적 등은 3음절,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등은 4음절에 해당한다. 양국 모두 2음절이 가장 많고, 한국어는 2-3-4-1음절 순, 일본어는 2-1-3-4순이다. 어종은 한자어가 절대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재현, 2001).

3) 상세한 예는 손재현(2001)을 참고.

표1 음절별로 본 ‘的’의 선행어기

음절	언어별		전체
	한국어	일본어	
1음절	25 2.4%	27 7.8%	52 3.8%
2음절	846 82.1%	303 87.1%	1149 83.4%
3음절	117 11.4%	15 4.3%	132 9.6%
4음절	41 4.0%	2 0.6%	43 3.1%
5음절	0	1 0.3%	1 0.05%
6음절	1 0.1%	0	1 0.05%
전체	1030 100.0%	348 100.0%	1378 100.0%

표2 어종별로 본 ‘的’의 선행어기

어종	언어별		전체
	한국어	일본어	
한자어 (漢字語)	1028 99.8%	343 98.6%	1371 99.5%
고유어 (和語)	0 .0%	2 0.6%	2 0.1%
외래어 (外來語)	2 0.2%	3 0.9%	5 0.4%
혼합어 (混種語)	0 .0%	0 .0%	0 .0%
전체	1030 100.0%	348 100.0%	1378 100.0%

2.1.2 다의성을 가진 어례의 수 (한국어)

표3 두 가지 뜻 이상으로 기술된 단어수

총 1030어 중 146어(14.4%)		
두 가지의 뜻	세 가지의 뜻	네 가지의 뜻
140	8	2

위 표3의 분류의 목적은 접미사 ‘的’의 생략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와 ‘사회적 문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단순히 ‘的’의 생략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라는 속어는 위의 분류에 따르면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뜻으로 분류된 ‘경제적’의 경우는 생략하면 의미의 혼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두가지이상의 뜻으로 분류된 것은 접미사 ‘的’이 생략될 수 없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표4는 한국어, 일본어의 양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출현어의 음절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4 한일 공통출현어례의 음절별 분포

음절(수)	어례 (304語)
1음절(21)	公的 劇的 內的 端的 動的 物的 美的 法的 病的 私的 史的 性的 詩的 心的 量的 外的 靈的 全的 靜的 知的 質的
2음절(273)	可及的 假言的 家庭的 間接的 感覺的 感傷的 感情的 強壓的 強制的 概念的 開放的 個性的 個人的 客觀的 巨視的 建設的 結果的 決定的 驚異的 經濟的 經驗的 啓蒙的 系統的 計畫的 高踏的 高壓的 古典的 空間的 功利的 公式的 過渡的 科學的 觀念的 官能的 官僚的 教育的 求心的 具体的 國民的 局部的 國際的 局地的 歸納的 規則的 近代的 根本的 急進的 機械的 機能的 記錄的 技術的 奇跡的 嗜虐的 樂觀的 樂天的 男性的 浪漫的 內面的 內罰的 論証的 能動的 能率的 多角的 多面的 多元的 斷言的 斷片的 大陸的 對照的 大衆的 對稱的 代表的 道德的 挑發的 獨斷的 獨占的 獨創的 突發的 動物的 未梢的 魅力的 盲目的 名目的 模範的 牧歌的 夢幻的 無機的 無罰的 文化的 物理的 物質的 微視的 微溫的 民主的 民衆的 反動的 反射的 反意的 反抗的 排他的 變則的 保守的 普遍的 本格的 本能的 本有的 本質的 封建的 部分的 否定的 副次的 悲觀的 比較的 悲劇的 飛躍的 社交的 事務的 寫實的 社會的 殺人的 相對的 象徵的 生得的 生理的 生產的 庶民的 選言的 先天的 世界的 世俗的 消極的 受動的 宿命的 試驗的 神秘的 紳士的 實用的 實証的 實質的 實踐的 實驗的 心理的 壓倒的 野性的 野心的 良心的 女性的 歷史的 逆說的 演繹的 熱狂的 厭世的 營利的 永續的 芸術的 外面的 外罰的 優先的 運命的 原始的 衛生的 有機的 流動的 肉感的 肉體的 倫理的 義務的 意識的 意欲的 利己的 理論的 理想的 理性的 理智的 人間의 人工的 人道的 印象的 人爲的 一面의 一般의 一方의 一時의 一元의 一義의 一次의 立体的 自動的 自發的 自殺的 自生的 自然的 自主的 作爲的 潛在的 暫定的 積極的 全國的 全面的 專門的 戰鬪的 典型的 絕對的 絶望的 定期的 精力的 精神的 定言的 政治的 組織的 主觀的 周期的 主体的 準靜的 中心的 重點的 卽物的 卽興的 知性的 直觀的 職業的 直接的 進步的 天才的 哲學的 体系的 初步的 超人的 抽象的 衝動的 致命的 打算的 耽美的 統計的 通俗的 統一的 退嬰的 退廢的 投機的 破壞的 派生的 便宜的 平均的 平面的 平民的 閉鎖的 包括的 爆發的 必然的 學究的 學問的 合理的 合法的 享樂的 虛無的 獻身的 革命的 革新的 現代的 現世的 現實的 術學的 形式的 好意的 好戰的 化學的 幻想的 活動的 晝期的 晝一의 效果的 效率的 後天的
3음절(10)	近視眼的 無意識的 反社會的 非生產的 非倫理的 非人道的 前近代的 合目的的 劃時代的 超越論的
4음절이상	해당 없음

전체적으로, 한국어의 경우 229어가 일본어로의 전환이, 일본어의 경우 25어가 한국어로의 전환이 부자연스럽게 나타나, 접미사 ‘~적(的)’의 표현전환성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더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으나, 그만큼 오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이론적인 체계에 의해서보다는 언어자산의 보존 및 어휘자료의 능률적 활용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단어가 등재되므로(沈在箕, 1982:303)<sup>4)</sup>, 본고에서 자료로 사용된 용례가 실제 사용어휘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용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4) 趙南浩(1988)에서 재인용.

우선 공통출현어를 제외한 한국어용례 중 일본신문에 나타나지 않는 어수 236어<sup>5)</sup>를 다시 살펴보면 아래 40어는 선행어기만으로도 일본어에서 쓰이지 않는 한자이다. 즉, 아래의 단어는 ‘~的(teki)’를 접미하여 사용하기 어렵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식(假飾), 간헐(間歇), 감각(感官), 거도(擧道), 거시(擧市), 거족(巨足), 거족(擧族), 고치(苦恥), 괴악(怪惡), 다자주의(多者主義), 대내외(對内外), 대척(對臈), 독존(獨尊), 도식주의(圖式主義), 독단주의(獨斷主義), 독선주의(獨善主義), 돌변(突變), 맹신(盲信), 반당(反黨), 반민주(反民主), 반항아(反抗兒), 발악(發惡), 비민주(非民主), 비본질(非本質), 상무(尙武), 순리(順理), 애상(哀想), 역동(力動), 연차(連次), 정극(靜劇), 조방(粗紡), 축자(逐字), 편파(偏頗), 피동(被動), 한의학(韓醫學), 항시(恒時), 행습(行習), 호인(好人), 후차(後次), 획시기(劃時期)

## 2.2 두 사전에서 공통어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日韓 양 국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어수의 용례 (20語)

다음으로 한일 양국어의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제시한다. 예문은 조선일보,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 1. 고압적/高壓的

(韓) 중국-동남아인에 고압적 입국심사 (조선, 2006.2.7, 국제)

(日) 8番目は, 1936年の西安事変。35年から36年ごろは, 日本と中國は全面戦争を避けられる兆しも見られた。日本には從來の高壓的な態度を見直し, 中國のナショナリズムを理解しようという動きも現れた。

(朝日新聞, 2008.01.09, 國際)

5) 상세한 예는 손재현(2001)을 참고.

## 2. 가속도적/加速度的

(韓) 즉 산업화를 낳은 합리적 과학 정신은 생활태도 및 정치사회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적인리 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발전은 가속도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조선, 1993.2.28, 경제)

(日) 特に米國は選挙が終わらないと具体的な対策は出てこない。経済指標が加速度的に悪化しており, 市場のセンチメントが不安定になっている」と三澤氏は話している。(朝日新聞, 2008.10.20, ビジネス)

## 3. 건강적/健康的

(韓) 미국 재무부는 5일 포도주 병 라벨에 '포도주 섭취가 당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 가정의 의 자문을 받기를 자신 있게 권합니다'나 '포도주 섭취의 건강적효능을 알고 싶다면 연방정부의 권고치를 보 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우편물과 웹 사이트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 1999.2.7, 국제)

(日) 200グラムあたり140キロカロリー。一般的なトルトカレーより50

キロカロリーほど少なく, 健康的に仕上げたという。

(朝日新聞, 2008.10.30, マイタウン)

## 4. 공적/公的

(韓) 특히 이충재측이 이번 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김위원장 답방 문제였다는 점과, 국회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김위원장 답방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도 진전된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조선, 2001.2.6, 정치)

(日) 首相が提唱した地域主権型道州制については, まずは, 福祉や教育行政についてどういう形をめざすのか, アメリカのように民間の保険でやっていくのか, 公的な社会保障でやっていくのかななどを, 提示しなければいけない。(朝日新聞, 2008.9.30, 마이타운)



### 5. 귀족적/貴族的

(韓)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창시자 피타고라스가 자신이 세운 학과의 귀족적 경향 때문에 남부 이탈리아 민주세력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 2001.1.18, IT)

(日) といっても、著者が封建制というとき、それは土地所有や貴族の特権というような通常の意味においてではなく、封建制を中央集権的國家に對抗するもう一つの選擇肢として意味づけたモンテスキューの理解にもとづいている。(朝日新聞, 2006.9.3, 書評)

### 6. 다의적/多義的

(韓) 전시주제인 구상과 비구상은 미술작품을 크게 구분하는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쓰이는 맥락에 따라서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 2000.8.1, 문화)

(日) 本書は、廣く讀まれた『文學とは何か』の著者による文化概念のコンパクトなパノラマである。文化という言葉は、今日きわめて多義的に用いられる。

(朝日新聞, 2006.10.1, 書評)

### 7. 독단적/獨斷的

(韓) "구단과의 마지막 협상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는 언제고 바로 다음날 구단과 상의도 없이 독단(的)으로 팀 잔류를 선언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조선, 2001.2.1, 스포츠)

(日) 02年8月には「原爆の日」の「平和宣言」で、同時多發テロ後の米國の核政策を「國際社會の核兵器廢絶への努力に逆行している。こうした一連の獨斷的な行動を斷じて許す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初めて米國を名指して批判した。(朝日新聞, 2007.4.17, ニュース特集)

8. 말기적/末期的

(韓) “궁예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라.”정창화 한나라당 원내총무, TV 드라마 ‘왕건’에서 궁예의 집권 말기적 행태가 현 정권의 운명과 비슷해 보인다 면서(조선, 2001.1.14, 정치)

(日) 花島行男・選對本部長代理 年金, 政治, お金, 環境など計12点のマニフェストで末期的状態の日本を救えると訴えたい。

(朝日新聞, 2007.7.12, 地方ニュース)

9. 발본적/拔本的

(韓) 다만 그것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일본식 조직의 발본적 개혁이다 (조선, 1999.7.25, 국제)

(日) とくに重要なのは、インドの「賣り」である「人材」をどう日本の將來に組み入れ、どう「人的交流」を拔本的に強化するかである。

(朝日新聞, 2008.3.10, 國際)

10. 발작적/發作的

(韓) 알콜 중독에다 측두엽 간질을 앓았던 고희는 발작적 도취상태에서 제 귀를 잘라낸다. (조선, 2001.2.9, 문화)

(日) この過換氣症候群とは、精神的不安や緊張, 興奮などの心理的背景によって發作的に「息が苦しい」「空気が飲み込めない」「胸が苦しい」などの空氣飢餓感を訴える病氣です。(朝日新聞, 2005.3.14, 健康)

11. 복안적/複眼的

(韓) 한사람은 눈하나를 감고 밝은 점만 보고 또 한사람은 역시 한쪽 눈을 감고 어두운 면만 봅니다. 이제 양면성, 양의성으로 사회를 보는 복안적 사회를 이룰 때 가 온 것이라고 봅니다. (조선, 1993.3.7, 문화)

(日) 自分の専攻語の國だけではなく、世界中のさまざまな國の言語や文化

を知るようにな、日本中心的發想から離れ、異なる価値観があることを學び、日本を基盤にしながらも複眼的に物を見る能力が養われていくのです。(朝日新聞, 2008.6.23, マイタウン)

#### 12. 서민적/庶民的

(韓) 서민적 분위기에 40여석. 첫째 세째 일요일엔 쉬고, 둘째 네째엔 오후3시 문을 연다. (조선, 2000.12.15, 문화)

(日) 今回のトピは、「實は庶民的なものがキレイ」といふトピ主さんの書き込みで始まりました。スーパーのポイントカードやテレビ、雑誌で紹介される節約術を見て、モヤモヤしているという人が續々集結し、バーゲンや行列、100円ショップなど「庶民的」なものがやり玉に。

(讀賣新聞, 2007.11.22, 讀賣新聞)

#### 13. 양심적/良心的

(韓) 그는 “기계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며, 양심적으로 또는 비양심(的)으로 편향돼 있지도 않다” (조선, 2000.11.12, 국제)

(日) 試しに1000円で食べられるセットを作ってもらったところ、生ビール(480円)に加え、(中略)、白菜キムチが1皿(100円)と、5種類の料理が並んだ。これで税込み980円。少しずついろいろな料理が楽しめるうえに、値段も實に良心的だ。(朝日新聞, 2008.9.25, 國際)

#### 14. 양적/量的

(韓) 생산차중을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면서 양적성장을 이루는3단계(2005년)로 나눠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 2001.2.13, 경제)

(日) 利下げは、日銀が量的緩和政策に入った01年3月以來約7年7カ月ぶり。日銀は06年3月に量的緩和政策を終結し、引き締めへ轉じてから2度の利上げを實施しており、約2年7カ月ぶりの政策轉換となる。

(朝日新聞, 2008.10.31, ビジネス)

15. 영적/靈的

(韓) “신학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잘 길러내지 못했으며 시대가 기대하는 영적소망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

(조선, 2001.2.8, 문화)

(日) 受賞後第1作は、お笑い小説だという。「實録ホラーも中間小説も、自分の中では地続き。要は何に巻き込まれるか。ヤクザなのか、靈的なもので現象は違うが、そこから始まる何かを書きたい」(朝日新聞, 2008.3.13, 文化)

16. 이지적/理知的

(韓) 맹자사상은 형이상학적이고 순자사상은 이지적이다.

(조선, 2000.10.13, 문화)

(日) 長い間、師匠(先代八世綱大夫)の白湯汲みをして体に師匠の芸をしみこませ、厳しい稽古にも耐えた。理知的で音遣いの巧みな芸風。「綱大夫の『近松物』はいい」といわれる。(朝日新聞, 2007.10.2, 文化)

17. 자생적/自生的

(韓) 자생적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한국의 경우는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선, 2001.2.15, 문화)

(日) 思想的に言えば、本書は、ハイエク的な自生的秩序論とスピノザ的な内在性の哲學との交配でもある。(朝日新聞, 2007.6.3, 書評)

18. 전국적/全國的

(韓) 산업자원부는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종합적 완성을 위해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선, 2001.2.19, IT)

(日) 30人ほどのメンバーで運営している同會は、全國的に減少傾向にある

ウバメガシの再生に取り組む。(朝日新聞, 2008.9.15, マイタウン)

### 19. 주체적/主体的

(韓) 흘러 지나가는 시간에 끌려가던 삶을 그치고, 몸에 호흡을 머금어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라봐! (조선, 2001.2.15, 문화)

(日) 新呼称は東國原英夫知事らによる委員会が選んだ。「活動は花の植栽でも道路の清掃でも構わない。大切なのは住民が主体的に取り組むこと」(知事)とされている。(朝日新聞, 2008.11.2, 社會)

### 20. 중층적/重層的

(韓) 캔버스 위에 거둬진 채색작업을 통해 중층적 화면 구조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준다. (조선, 2000.6.27, 문화)

(日) 昨年9月から調査に入り, 200軒を「踏破」した。「味が重層的でめんにもこだわりがあり, 縣外の人にも推薦できる」「地元でうわさの人気店・老舗(しにせ)」の二つの基準をもとに選んだ。

(朝日新聞, 2008.10.24, マイタウン)

## 3. 접미사 ‘的’이 사용된 한국어 표현의 일본어 직역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본 장에서는 한국어의 접미사 ‘的’ 표현을 일본어로 그대로 옮기면 어색한 경우의 예를 살펴본다. 우선, 시중에 유통되는 통·번역소프트웨어나 실제 통·번역시 또는 예를 들어, 한국의 일본어학습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한글 國際版’에서도 실제로 일본어에서는 단 하나의 용례도 찾을 수 없는 ‘必死的’이라는 단어가 히라가나로 ‘ひっしてき’로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접미사 ‘的’이 접미되는 한자숙어 ‘必死的’으로 일괄적으로 한자 변환되고 있음은 물론 한일 사전에서도 오용예문이 실리는 등 오용표현이 너무나 단순하고

빈번하게 쓰여지고 있다. 한국어의 ‘횡적(橫的)’이라는 단어는 일본어의 ‘横並び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필자가 수집한 예를 토대로 접미사 ‘的’ 잘 못 쓰여진 또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살펴보도록 한다. 참고용례는 조선일보에서 발췌한 것이다.

### (1) 극단적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용해 왔다. 한은의 투자 방식은 극단적인 ‘안전 제일주의’여서, 채권이나 예금에 거의 100% 투자하고 있다.

韓國が保有している外貨は、これまで韓國銀行が獨占的に運用してきた。韓國銀行の投資方式は極端的な「安全第一主義」のため、ほぼ全額を債券や預金に投資している。

2007.02.22 외환보유 세계5위 한국

→ ‘극단적’은 ‘極端の’로 바꾸어 쓰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즉, 그대로 변환하여 쓸 수 없는 예이다.

### (2) 대략적

이들 국가의 환율이 왜 이렇게 등락을 하는 걸까.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환(換)테크’의 시각에서 대략적인 전망을 알아봤다.

これらの國の爲替は、なぜ高騰したのだろうか。また、今後の動向はどうなるのだろうか。「爲替テク」の視点から、大略的展望を探った。

2007.11.21 나라별로 다른 환테크 전략

→ 大略。

### (3) 대체적

두 번째는 작업의 당위성과 시의성(時宜性)에 대한 국민적 합의(consensus)가 있어야 한다. 대체적 여론이 정권의 노력을 긍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힘

들어지고 또 의미도 없어진다. 국민적 합의 없는 개혁은 정치권력의 집안잔치 일 뿐이다.

二番目に、作業の当爲性と時宜性に對する國民的合意(コンセンサス)がなければならぬ。大体的な世論が政権の努力を肯定しなければ、いかなる改革も難航し、無意味なことになる。國民的合意のない改革は政治權力の内輪だけのパーティーに過ぎないのだ。

2004.11.29 '盧 정권의 無所不爲'

→ 大体の。

#### (4) 발광적

북한은 “미 호전세력이... 제2 조선전쟁 준비책동을 발광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이 위위대는 대화도 위장대화가 아닌가”(노동신문 25일) 등 대미(對美) 비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北朝鮮は25日付の労働新聞で、「米國の好戰的な勢力が、第2の朝鮮戰爭準備を發狂的に行っている。

2007.12.26 '우라늄 농축' 진위 여부로 美·北 긴장고조

→ '狂'가 들어간 어휘는 말의 품격을 낮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本格的に。

#### (5) 불법적

힐 차관보는 이날 국무부에서 한국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요구하는 금융제재 중단에 대해 “위폐 수사는 6자회담이나 외교와는 별개의 문제로 국무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이 이 같은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ヒル次官補はこの日、國務省で韓國特派員と懇談會を行い、北朝鮮が6か國協議再開の條件として要求している金融制裁の中斷に對し、「偽造紙幣の調査は6か國協議や外交とは別途の問題で、國務省が介入する余地はない」とし、「唯

一の解決策は北朝鮮がこのような不法的な活動を中斷することだ」とした。

2005.12.22 정부, 美·北사이 ‘줄타기 외교’

→ 不法な。

(6) 무형적

독도론 강의는 독도의 가치를 생태·군사·자원 등 유형적 측면과 역사·교육·문화 등 무형적 측면으로 나누었다.

獨島論の授業は，獨島の価値を生体・軍事・資源などの有形的側面と歴史・教育・文化などの無形的側面に分けて進められる。

2006.03.11 대학 정규과목에 오른 獨島 경일대 1학년에 개설

→ 無形自産の。

(7) 상투적

그러나 지금의 이 상황을 북한의 상투적인 협상 전술로만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병석에 누웠다는 시점과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는 시점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しかし北朝鮮による最近の一連の動きを，單に彼らの常套的な交渉戦術としてとらえるのも納得がいかない。金正日（キム・ジョンイル）總書記が病に倒れたという時期と，北朝鮮が無能力化の措置を中斷したという時期はほぼ一致している。

2008.09.24 핵시설 봉인 제거 요구, 북한 누구의 결정인가

→ ありきたりの。

(8) 신축적

대기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신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연계 강화로 노동·자본의 감축분을 대체하고 있다.

大企業は景氣の変動にあわせ伸縮的に對應できるよう，中小企業との連携を強化することで労働と資本の削減分を代替している。

2005.04.28 “저임금과 中企차별로 한국경제 성장했다는 교과서 서술은 잘못”



→ 柔軟に。

(9) 수세적

70년대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형성된 좌파와 민족주의의 20년 공존이 끝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는 20세기 우리 역사에서 생겨난 수세적이고 저항적인 민족주의와의 결별이라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 사회과학자들의 진단이다.

1970年代と80年代の權威主義政權に對抗してきた民主化闘争の過程で形成された、左派と民族主義との20年にわたる共存が終息の時を迎えている、との見方が學界などで引き続き言及されている。これは、20世紀の韓國史において生じた守勢的で抵抗的な民族主義との決別という点で多くの意味を持つ、というのが多くの社會學者たちの見方だ。

2007.09.03 [한국 민족주의의 대전환] (上)“좌파+민족주의 20년 동거 끝나”

→ 防衛的。防衛本位。

(10) 순정적

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은 TV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청하는 이유에 대해 ‘스토리 그 자체(12.1%) 보다 ‘영상미(27.9%)’ ‘감미로운 음악(22.5%)’ ‘순정적인 준상의 이미지(21.6%)’를 더 많이 선택했다.

同調査によれば、日本人観光客らはテレビドラマ『冬のソナタ』を視聽する理由として、「ストーリー」(12.1%)そのものより、「映像美」(27.9%)、「ロマンチックな音楽」(22.5%)、「純情的なチュンサンのイメージ」(21.6%)などをより多く挙げた。

2005.01.12 “배용준 인간적, 남이섬 가고 싶어”

→ 純粹な。

(11) 수동적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타격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작전개념이 과거 수동적인 남침저지에서 능동적인 서울 방어로 바뀐 데 기인한 것이다.

北朝鮮の攻撃兆候が明確である場合、先制攻撃を展開する計画も含まれていると伝えられた。これまた、作戦概念が従來の手動的な南侵阻止から、能動的なソウル防衛に変わったことに起因している。

2003.06.04 주한 美사령관 “서울 방어 작전개념 바꾼다”

→ 受身的な。

(12) 순차적

제주항공은 작년 6월 캐나다 롬바디어사(社)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5대의 항공기(Dash8-Q400 기종)를 새로 제작해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다.

濟州航空は昨年6月に採決したカナダ・ボンバルディエ(Bombardier)社との購買契約によって、計5台の航空機(Dash8-Q400機種)を今年5～10月まで順次的に導入する計画だ。

2006.01.04 제주항공 6월부터 취항 10월까지 항공기 5대 들여와

→ 順次に。

(13) 쌍무적

형식적으로는 현대문제가 채권은행과의 쌍무적 대차관계라지만 기실은 정부가 세금으로 출자했거나 거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과의 채권관계이므로 그것은 단순한 채권기관만의 관심을 넘어 온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このような無責任で恥さらしなことを繰り返すのは國民を愚弄する行爲だ。形式的には現代問題が債權銀行との双務的貸借關係というが、實際には政府が税金で出資したり、巨大な公的資金が投入された銀行との債權關係であるため、それは單なる債權機關だけの關心事を超え、全國民の關心事となるしかない。

2001.04.23 정부의 끝없는 ‘현대 퍼주기’

→ 相互。

(14) 야만적

일본군 점령 지역의 정책은 ‘야만적 경제적 약탈’과 ‘노예교육 실시’로 압축 서술해 수탈과 민족말살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日本軍の占領地域での政策は「野蠻的經濟的略奪」と「奴隸教育の實施」に壓縮記述され、收奪と民族抹殺を強調している点で韓國と似ている。

2006.01.24 韓·中·日 ‘입맛대로 역사교과서’

→ 不作法で粗暴な。粗野な。

(15) 임의적

광주대교구는 또 “자칭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윤 율리아와 그 주변인들에 의해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집회와 의식은 가톨릭 신앙 행위와 무관한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光州大教區は「自称“聖母の丘”でユン・ユルリアとその周辺人物らが任意的に行っている集會や儀式は、カトリックの信仰と無關係であることを再度確認する」と發表した。

2007.11.22 “나주 피눈물 흘리는 성모像, 가톨릭과 무관”

→ 無斷で。

(16) 음성적

지난 17일 당침자가 발표된 서울 8차 동시분양 아파트도 정상적인 분양권 거래는 중단된 가운데 일부 떼다방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

今月17日、分讓對象者が發表されたソウル8次の同時分讓マンションも正常な分讓權の取引は中斷された中、一部の「トットバン(移動式の不動産仲介業者)」を中心に陰性的な取引が行われている。

2002.09.23 수원·안산·부천 분양권 시세 급등

→ 闇。闇取引。

## (17) 우연적

김씨 주장은 또 그럴싸한 면도 있지만 우연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 꾸며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돈을 주고 빌리는 쪽배에 올랐다는 점이나 쪽배에서 잠이 들었다는 주장, 부모가 남쪽에 살고 있는데 북한에 잔류를 희망했다는 점 등이 수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金英男さんの主張にはもっともらしい面もあるが、偶然的要素があまりにも多く、作り上げられた内容という感が否めない。カネを拂って借りた木の船に乗ったという点や船の中で眠ってしまったという主張、両親が南で暮らし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北朝鮮に残留することを希望したという点などが納得しがたい部分だ。

2006.06.30 김영남씨 "남북 아니다" 거짓말

→ 偶然の。

## (18) 지엽적

전작권 전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문제들이 과대포장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 핵실험 후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중단이 북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지 회의적(10.10자 세계일보 대담)”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戦時作戦統制權の韓國軍移讓に反對する世論に對しても、「枝葉的な問題が誇張されている状況だ」と主張している。北朝鮮の核實驗後には「開城工業団地・金剛山觀光事業の中斷が北朝鮮に核を放棄させられ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懐疑的」(10月10日の世界日報との對談)という見方を示した。

2006.11.25 ‘햇별 코드’ 백종천 육사출신 학자

→ 枝葉末節的。

## (19) 즉각적

그러나 청와대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현실 정치에 즉각적 변동을 줄 만한 ‘선택’이 아니라 20~30년 앞을 내다볼 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을 새로운 아젠다로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しかし、大統領府側はこれを全面的に否定している。實際の政治に即刻的な變動を与えかねない「選擇」ではなく、20年から30年の先を見据えた場合、今から準備し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を新しいアジェンダとして提示する内容と説明している。

2006.01.02 “감작수 없을 것” 노대통령 연두회견 미래비전만 밝힐 듯  
→ 即刻。

(20) 창의적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대통령이 정부 조직을 통폐합시킨 창의적 실용주의원칙에 따라 국정원의 일부 부서를 통폐합시키거나 분리시켰다”면서 “조직구성 자체가 대외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능적으로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됐다”고 했다.

別の政府關係者は「李明博大統領が政府の組織を統廢合させたのと同じように、“創意的な實用主義”の原則に基づいて、國情院の一部の部署も統廢合、または分離させた。組織の構成そのものが對外秘であるため、公開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機能的かつ“仕事しやすい組織”に生まれ変わった」と話している。

2008.03.20 국정원 1급이상 60% 물갈이  
→ 獨創的な。

(21) 천성적

그러나 김 교수는 같은 후한 때 사람이지만 양부보다 앞선 시기의 사상가인 왕충(王充:27~?)의 《논형(論衡)》이 더 먼저라고 말했다. 《논형》〈시응(是應)〉 편에는 ‘해태(해치)는 외발 양(一角之羊)이며 천성적으로 죄 있는 자를 안다’고 기록했다.

しかし金教授は、同じく後漢代の人ながら楊孚より前に思想家・王充(27 沒年未詳)が著した『論衡』の方が早いという。『論衡』の「是應」編には、「へテは“一角之羊”であり、天性的に罪ある者を知る」という記録がある。

2008/06/01 서울 상징 '해치' 3대(大) 미스터리  
→ 生まれながら。

### 3. 결론

본 논문은 일본어 차용접미사 ‘的(teki)’의 한일번역의 제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의 ‘的’이 쓰인 단어의 예를 상세히 검토하고 그 용법에 대해 대조 고찰하여, ‘的’의 용법의 차이와 오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미사 ‘적’의 상호호환성은 한국어가 일본어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양국사전에서 공통으로 표제되어 있는 공통출현어를 제외한 후, 나머지의 어례(語例)를 자료로 하여 양국의 신문과 웹사이트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한국어의 경우, 총1030어 중에서 공통출현어 304어를 제외한 726어 중에서 일본 신문과 인터넷검색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47.6%에 해당하는 490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2.9%에 해당하는 236어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일본어는 경우 총348어 중에서 양국사전에서 공통으로 표제되어 있는 304어를 제외한 44어를 한국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5.2%에 해당하는 18어는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 7.52%에 해당하는 26어는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조사 결과로 보면, 한국어의 접미사 ‘적’의 표현의 10개 중에서 2개 이상이 일본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26어가 한국 신문에서 그 용례를 찾을 수 없었는데, 26어 중 고유어 3어, 외래어 3어를 제외하면 20어이다. 따라서 일본어의 접미사 ‘적’의 표현을 한국어로 옮길 경우보다 한국어의 접미사 ‘적’의 표현을 일본어로 옮길 때 잘못 쓰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접미사 ‘적’이 사용된 한국어 표현의 일본어 직역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의 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어례(語例)를 제시하고 번역이론이 중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한일 양 국어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빈도가 높은 용례와 접미사 ‘적’이 사용된 한국어의 표현을 일본어로 그대로 옮겨 사용할 경우 부자연스러운 용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오용례를 제시하였다.

## 인용문헌

- 김재윤. 1976. 「‘N+的’류 명사에 대한 형태 통사론의 고찰」, 『청주대 논문집』 11.
- 김용석. 1986. 「접미사 ‘~的’의 용법에 대하여」, 『배달말』 11: 73-89.
- 손재현. 2001. 「借用接尾辭‘的’に關する計量的考察」, 『翻譯學研究』: 129-144.
- 손재현. 2002. 「日・韓の國語教科書を通して見た接尾辭‘的’」, 『日本學報』 51: 73-84.
- 송민. 1985. 「과생어 형성 의존형태소 ‘~的’의 始原」 『干雲박병채박사 환령 기념논문』: 285-301.
- 鄭英淑. 1994. 「日本語接尾辭‘的’の設立および韓國語への流入問題考察」, 『日語日文學研究第』 25: 27-55.
- 천수성. 2000. 「接尾辭‘的’における言語感覺:アンケート調査を中心に」, 『일어일문학』 13: 17-35.
- 遠藤織枝. 1984. 「接尾語 ‘的’の意味と用法」, 『日本語教育』 53号: 125-138.
- 王淑琴. 2000. 「接尾辭‘的’の意味と‘的’が付く語基との關係について」, 『日本語教育』 104: 50-59.
- 原由起子. 1986. 「~的一—中國語との比較から—」, 『日本語學』 86年3月号: 73-80.
- 藤居信雄. 1961. 「‘的’の意味」, 『言語生活』 119: 80-83.
- 山田巖. 1961. 「發生期における‘的’という言葉」, 『言語生活』 120: 56-61.

[Abstract]

**Some problems in Korean and Japanese translation of a Japanese  
loan-word suffix 'teki (的)'**

Son, Jaehyun  
(Tokyo University)

This paper was that my problem of Korea and Japan translation of a Japanese loan-word suffix 'teki' was considered, and an example of a word with 'teki' in Korean and Japanese was considered in detail, it was considered contrastively to the usage and it was checked to the difference in the usage and a misuse of 'teki' . This study is about the meaning and usage of suffix 'teki'.

First, I extracted the meaning of suffix 'teki' in Korean and Japanese dictionaries published in 1999 to find out how a dictionary defines suffix'teki' and how many words of suffix'teki' are included.

Secondly, I searched into frequency in use of suffix 'teki'-cling words and examined how many times the same word repeats in daily vocabulary, and finally sorted out which words are commonly used in both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or independently used among searched words.

As a result, I classified the suffix 'teki'-cling words from Korean and Japanese dictionaries and scrutinized whether the suffix'teki'is found in a dictionary and set a limits to the suffix'teki'-cling item in a phrasal structure classification. At the same time I examined what words do not combine with the suffix 'teki'.



손재현

동경대학 문학부 외국인연구원

[jhson@l.u-tokyo.ac.jp](mailto:jhson@l.u-tokyo.ac.jp)

관심분야: 번역이론, 언어교육, 음운론

논문투고일: 2008년 10월 13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